

반도체용 전력소비 증가



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발표에 따르면, 4월중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6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에서 증가세('08.11월 $\Delta 3.9\%$ → '09.4월 0.7%)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력다소비 업종인 화학제품·철강·반도체업종에서의 전기소비 증가세가 확대된데 기인한다.

타 용도별 전력판매량을 보면, 주택용 및 일반용은 소비심리개선에 따라 각각 3.4%, 4.7% 증가하였고, 교육용은 학교 신·증축과 학습설비 등의 확충으로, 농사용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취수량 증가로 인해 각각 14.6%, 14.5% 증가하였고, 심야전력은 전년동

월의 낮은 전력판매량 증가율('08.4월 $\Delta 8.1\%$)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1.1%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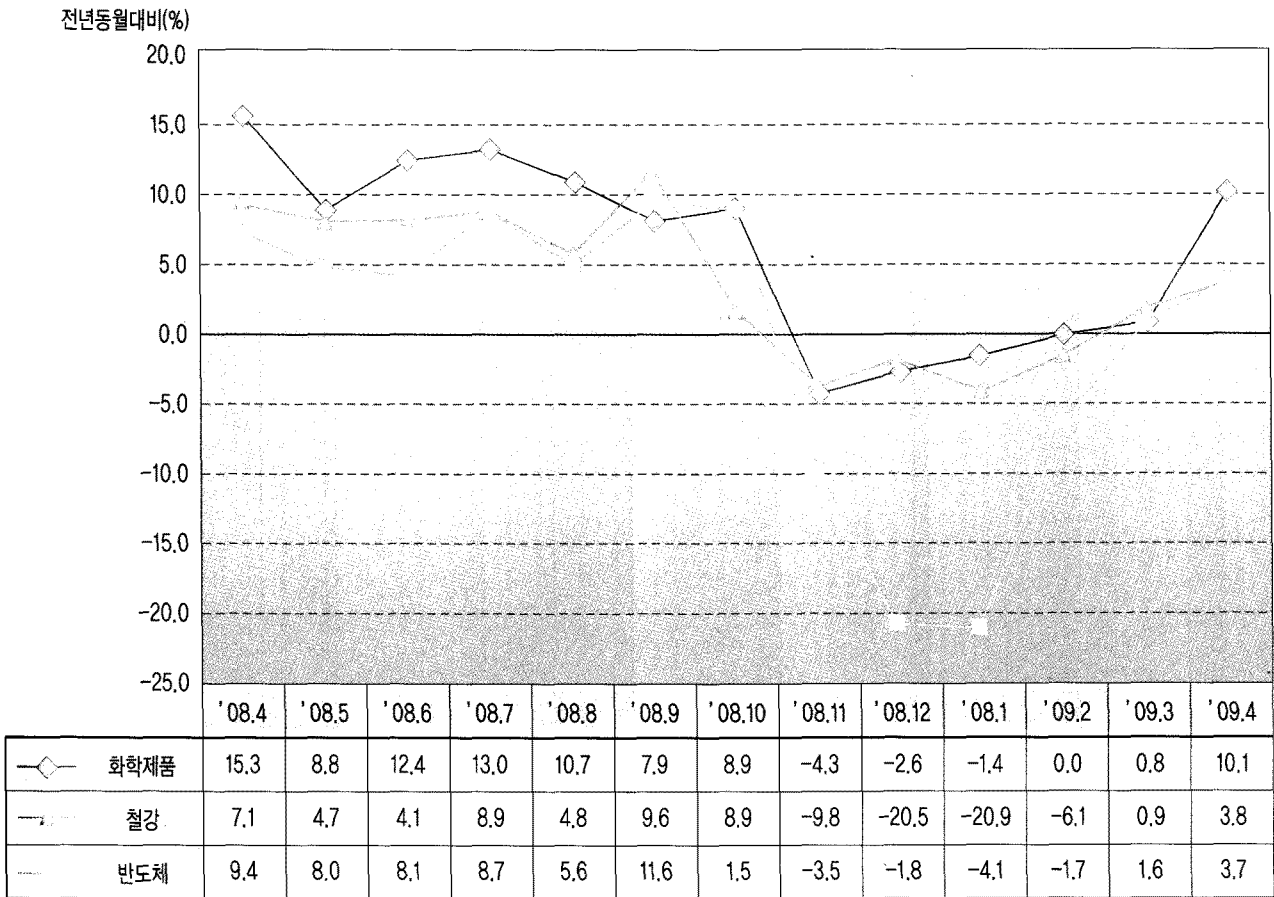
이에 따라, 올해 4월말까지 전체 전력판매량 역시 6개월('08.11월 $\Delta 1.3\%$ → '09.4월 2.4%)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.

4월중 전력거래량은 월평균기온 하락($\Delta 0.8^\circ\text{C}$)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.9% 증가한 315.6억kWh를 기록하였고, 거래가격은 작년초 대비 LNG·유연탄 등 주요 연료의 가격상승과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한전이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매 가격인 계통한계가격(SMP)은 114.18원/kWh로

〈주요업종별 전력사용량 증감율(전년동월대비, %)〉

구분	조선	조립금속	기계장비	자동차	반도체	섬유	화학제품	철강
'09.1월	0.3	$\Delta 16.7$	$\Delta 3.9$	$\Delta 32.0$	$\Delta 4.1$	$\Delta 10.5$	$\Delta 1.4$	$\Delta 20.9$
2월	12.0	$\Delta 10.7$	$\Delta 5.3$	$\Delta 20.5$	$\Delta 1.7$	$\Delta 6.7$	0.0	$\Delta 6.1$
3월	12.8	11.7	$\Delta 5.4$	$\Delta 22.2$	1.6	$\Delta 5.8$	0.8	0.9
4월	8.1	$\Delta 7.8$	$\Delta 0.8$	$\Delta 17.0$	3.7	$\Delta 3.2$	10.1	3.8

〈업종별 전력판매량 추이(전년동월대비증감률)〉



3.2%, 평균구입단가(정산단가)는 64.57원/kWh로 6.4% 상승하였다.

환율변동(월평균)은 ('08.4월) 987.24원/\$ → ('09.4월) 1,336.28원/\$ 이고, SMP(System Marginal Price)란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한계발전 변동비를 보상하는 가격이며, 정산단가란 실제 전력거래를 정산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, 주요 연료원별(원자력, 유연탄, LNG등)로 SMP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변동비와 고정비를 합한 총 거래금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이다.

한편, 4월중 최대전력수요는 5,406만kW(4월1일 11시)로서 월 최저기온 하락($\Delta 0.8^{\circ}\text{C}$)의 영향으로 작년 4월 최대전력수요에 비해 2.4% 증가하였으나, 전력공급능력에 전년동월대비 0.7% 증가한 6,437만 kW로서 전력예비율은 19.1%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다.

